

#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考察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 對『醫學入門』中出現的三陰三陽及標本中的研究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通過研究『醫學入門』中對於三陰三陽各自以六氣配屬原理, 六氣納支, 節氣方位, 標本陰陽屬性, 經脈納支, 脈體, 治法, 中氣等進行分類及考察, 得出結論如下:

1. 三陰三陽的屬性與地支的配屬不一致. 太陽和厥陰雖然以地支與辰戌和巳亥, 寅申相配屬, 但是實際上標本的陰陽屬性與納支的原理是不同的. 因此, 在區別標本陰陽的特性上, 節氣, 方位等不能成爲一定基準.

2. 三陰三陽本氣的五行屬性和經脈納支, 有可能不一致. 陽明燥金之本, 不是手陽明大腸, 實際上是足陽明胃才是本; 少陽相火之本, 亦不是手少陽三焦, 實際上是足少陽膽才本.

3. 三陰三陽按照從化規律其治法各異. 第一, 標與本的陰陽屬性相反時用反治法. 少陰本熱標寒, 太陽本寒標熱, 且寒熱不定, 故太陽熱因寒用, 而少陰寒因熱用. 第二, 標與本的陰陽屬性相同時用正治法. 太陰標本均寒, 少陽標本均熱, 故太陰寒因寒用, 塞因塞用. 而少陽通因通用. 第三, 標與本的陰陽屬性相反, 且與中氣的陰陽屬性不同時, 不能用正治或反治法, 應驅從於中進行治療. 即不能拘泥於厥陰和陽明的所定治法, 應隨機從中進行治療.

4. “少陰太陽 從本從標”在應用於治療時, 可解釋如下: 第一, 或者從本, 或者從標. 第二, 或者從本, 或者從標, 但治療上有其先後之別. 第三, 少陰寒因熱用. 太陽熱因寒用, 故同時驅從於標本.

5. 在“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的“從乎中”, 可理解爲在治法運用中可以“隨機取中”之意.

關鍵詞: 三陰三陽, 標本中, 六氣納支, 經脈納支, 中氣, 正治, 反治

## I. 序 論

韓醫學에서 '標本'의 概念은, 病證의 本態를 알아서 해당한 治療를 하기 위해 本質的인 것(本)과 非本質的이거나 副次的인 것(標)을 구분하거나, 또는 經絡에서 四肢에 있는 것(本)과 頭面身에 있는 것(標)을 구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sup>1)</sup>

한편 標本에 '中'을 더하여 三陰三陽의 從化規律과 結合하면 그 意義가 달라지는데, 첫째 三陰三陽의 屬性和 經脈, 臟腑의 屬性을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고, 둘째 疾病의 特徵을 이해할 수 있고, 셋째 脈體의 標本을 통해 적합한 治法을 정할 수 있다.

尹<sup>2)</sup>은 三陰三陽의 納支 原理 및 生理, 病理의

\* 交信著者: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43) 649-1347 johohun@kornet.net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판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p. 1109. 본문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음.

應用에 대해 연구 보고하였으며, 金<sup>3)</sup>과 申<sup>4)</sup>은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을 통해 六經의 氣化原理를 연구 보고하였으며, 金<sup>5)</sup>은 六氣가 標本의 陰陽屬性의 同異에 따라서 從化規律이 다름을 연구 보고한 바가 있다.

『醫學入門』에도 三陰三陽에 대한 설명이 「天地人物氣候相應圖」, 「運氣總論」, 「求本論」, 「雜治賦」 등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 보여서 三陰三陽의 全貌를 살피기에 容易하지 않다.

이에 著者는 三陰三陽 各各에 대해서 六氣의 配合의 原理, 六氣納支, 節氣와 方位, 標本의 陰陽屬性, 經脈納支, 脈體, 治法, 中氣 등으로 分類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少陰 太陰의 '從本從標'와 陽明 厥陰의 '從乎中'의 解釋에 새로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II. 本論

### 1. 標本の 定義와 臟腑, 經脈, 疾病과의 關係

우선 標本에 대한 定義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醫學入門·標本論』<sup>6)</sup>을 근거로 세 가지 관점으로 歸納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人身의 內外 陰陽으로 구분한다.

外는 標가 되고 內는 本이 된다. 陽은 標가 되고 陰은 本이 된다. 따라서 六腑는 陽에 속하니 標가 되고 五臟은 陰에 속하니 本이 된다. 각 臟腑의 經絡 중에 外에 있는 것은 標가 되고 內에 있는 것은 本이 된다.

둘째 人身의 氣血로 구분한다. 氣는 標가 되고 血은 本이 된다.

셋째 發病의 先後나 病勢의 緩急로 구분하여 治病의 先後를 결정한다. 다만 두 가지 기준이

相衝할 때에는 發病의 先後보다 病勢의 緩急이 우선한다.

먼저 病이 된 것은 本이 되고 後에 傳流하여 病이 된 것은 標가 되니, 치료에 있어서 本을 먼저 하고 標를 나중에 한다.

또한 病勢의 緩急으로 治療의 先後를 결정한다. 病勢가 緩慢한 것은 本이 되고, 病勢가 急한 것이 標가 된다.

넷째 醫師가 標가 되고 病이 本이 된다. 醫師인 標와 疾病인 本이 제대로 들어맞아야만 邪氣가 이에 服從하게 된다. 治療가 相應하지 않으면 標本을 얻지 못한 것이 된다.

『素問·至眞要大論』의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의 문장은 治療의 方法을 결정하는 기준을 論한 것으로 본다면, 첫째와 둘째의 의미에 의하여 演繹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詳論하기로 한다.

셋째의 의미는 疾病이 발생한 先後 또는 病勢의 緩急으로 治療의 先後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데 標本の 概念을 도입한 것으로, 『至眞要大論』의 ‘從本’, ‘從本從標’, ‘不從標本, 從乎中也’에 의하여 治法을 결정하는 것과는 觀點이 약간 다르다.

넷째의 의미는 狹小하게 疾病 自體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醫師가 疾病을 정확히 진찰해야 한다는 當爲性을 說明한다. 즉 『醫學入門·標本論』에 “醫工이 色과 脈의 診察을 실수함이 없고 治療에도 疑惑됨이 없어야만 치료의 大法이 된다.”<sup>7)</sup>고 한 것이다. 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素問·方盛衰論』의 ‘不失人情’<sup>8)</sup>에 속하므로 본 研究와 연관성이 적으므로 우선 제외하기로 한다.

‘標本’論을 五臟六腑와 經脈에서 나타나는 疾病에 應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疾病을 標本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이

2) 尹暢烈, 醫哲學, 大田, 주민출판사, 2005, pp. 306-329.

3) 金丁雨, 金吉萱, 經絡의 氣化生理에 관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5(1), 1990, pp. 119-149.

4) 申興默, 金吉萱, 十二經脈의 六氣 調節生理에 관한 研究(II), 東西醫學 16(3), 1991, pp. 20-35.

5) 金吳顯,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관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4(2), 1999, 1 pp. 99-116.

6) 李穰,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73.

7) 李穰,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75.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22.

陰陽의 상대적 屬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陽은 天, 無, 圓, 氣, 上, 外, 升, 生, 浮, 晝, 動, 輕, 燥, 六腑에 속하고, 陰은 地, 有, 方, 血, 下, 內, 降, 殺, 沈, 夜, 靜, 重, 濕, 五臟에 속한다. 따라서 疾病도 標本으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sup>9)</sup>

『素問·至眞要大論』의 病機論<sup>10)</sup> 중 六氣의 病機를 說明한 것은 다음과 같다.

厥陰(標) 風木(本):

“諸暴強直 皆屬於風”

少陰(標) 君火(本):

“諸脹腹大 皆屬於熱”

“諸病有聲 鼓之如鼓 皆屬於熱”

“諸轉反戾 水液渾濁 皆屬於熱”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於熱”

少陽(標) 相火(本):

“諸熱脊癢 皆屬於火”

“諸禁鼓慄 如喪神守 皆屬於火”

“諸躁狂越 皆屬於火”

“諸逆衝上 皆屬於火”

“諸病附腫 疼酸驚駭 皆屬於火”

太陰(標) 濕土(本):

“諸瘕項強 皆屬於濕”

陽明(標) 燥金(本): 관련 문장 없음

太陽(標) 寒水(本):

“諸病水液 澄澈清冷 皆屬於寒”

이외에 五臟 및 上下의 病機 역시 六氣의 屬性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木: “諸風掉眩 皆屬於肝”

火: “諸痛癢瘡 皆屬於心”

土: “諸濕腫滿 皆屬於脾”

金: “諸氣臃鬱 皆屬於肺”

水: “諸寒收引 皆屬於腎”

上: “諸痿喘嘔 皆屬於上”

下: “諸厥固泄 皆屬於下”

『素問』의 病機論을 발전시킨 劉河間의 十九病機<sup>11)</sup>를 위의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厥陰(標) 風木(本):

“諸暴強直, 支痛軟戾, 裡急筋縮, 皆屬於風”

少陰(標) 君火(本):

“諸病喘嘔吐酸, 暴注下迫, 轉筋, 小便渾濁, 腹脹大, 鼓之如鼓, 癰疽瘍疹, 瘤氣結核, 吐下霍亂, 脊鬱腫脹, 鼻塞衄衄, 血溢血泄, 淋瀝身熱, 惡寒戰慄, 驚惑悲笑譫妄, 衄衄血汗, 皆屬於熱”

少陽(標) 相火(本):

“諸熱脊癢, 暴瘡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 附腫疼酸, 氣逆衝上, 禁慄如喪神守, 及嘔瘡瘍喉痺, 耳鳴及聾, 嘔湧, 溢食不下, 目昧不明, 暴注瀉瘧, 暴病暴死, 皆屬於火”

太陰(標) 濕土(本):

“諸瘕強直, 積飲痞隔, 中滿, 霍亂吐下, 體重附腫, 肉如泥按之不起, 皆屬於濕”

陽明(標) 燥金(本):

“諸澀枯涸乾勁皴揭, 皆屬於燥”

太陽(標) 寒水(本):

“諸病上下, 所出水液澄澈清冷, 痿瘦癰疔堅痞, 腹滿急痛, 下利清白, 食已不飢, 吐利腥穢, 屈伸不便, 厥逆禁固, 皆屬於寒”

『醫學入門』에서 六氣의 病機를 說明한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六氣主病」<sup>12)</sup>

厥陰(標) 風木(本): “諸暴 強直 支痛 裏急 筋縮 續戾, 本足肝膽二經, 厥陰風木之氣.”

少陰(標) 君火(本):

“諸病喘嘔及吐酸, 暴注下迫轉筋難, 小便渾濁血溢泄, 瘤氣結核瘍疹斑, 癰疽吐下霍亂證, 臃鬱腫脹鼻寒乾, 衄衄淋秘身發熱, 惡寒戰慄驚惑

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73.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303-304.

11)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p. 10-27.

1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1078-1082.

間, 笑悲譫妄衄衄汚, 腹脹鼓之有聲和, 小陰君火手二經, 真心小腸氣之過.”

少陽(標) 相火(本):

“諸熱脅癭筋惕惕, 悸動搖擗瘕瘕極. 暴痞冒昧躁擾狂, 罵詈驚駭氣上逆. 附腫疼酸嘔嘔瘡, 喉痺耳鳴聾欲閉. 嘔涌溢食下不能, 目眊不明 膈瘦管, 或禁慄之如喪神. 暴病暴死暴注利, 少陽相火手二經, 心胞絡與三焦氣.”

太陰(標) 濕土(本):

“痿與強直積飲滯, 霍亂中滿諸隔痞體重吐下腑腫痿肉如泥之按不起太陰濕土二足經脾與從中胃之氣.”

陽明(標) 燥金(本): “諸澁枯潤閉, 乾勁揭皺起, 陽明之燥金肺與大腸氣.”

太陽(標) 寒水(本):

“上下水液出清冷, 癥瘕癰疽堅痼病. 腹滿急痛利白清, 食已不饑吐利腥. 屈身不便與厥逆, 厥逆禁固太陽經. 腎與膀胱, 爲寒水.”

(2) 「求本論」<sup>13)</sup>

厥陰(標) 風木(本): “風邪傷人 掉搖癭瘕卒暴強直之病 生焉”

少陰(標) 君火(本): “熱邪傷人 瘡瘍暴下水液渾混之病 生焉”

少陽(標) 相火(本): “火邪傷人 躁擾狂越 如喪神守之病 生焉”

太陰(標) 濕土(本): “濕邪傷人 腹滿身腫諸瘕強直之病 生焉”

陽明(標) 燥金(本): “燥邪傷人 膈鬱皺揭諸澁枯潤之病 生焉”

太陽(標) 寒水(本): “寒邪傷人 吐利腥穢諸寒收引之病 生焉”

周知하다시피, 素問의 病機를 劉河間이 數衍發明하였으니, 陽明에 속한 條文은 素問에 없던 내용이다.

『醫學入門』의 「六氣主病」에서는 河間의 十九病機를 요약함과 아울러, 『內經』의 五臟의 病機

1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76-2377.

를 五運主病으로 설명하였고, 「求本論」에서는 五運主病<sup>14)</sup>을 각각의 屬性에 相當한 六氣에 포함하였다.

이는 六氣의 病은 經脈으로 나타나고 五運(五臟)의 病도 결국 經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六氣와 五運(五臟)의 病의 所在은 다르더라도 五運의 病이 다시 六氣의 病의 범주에 할 수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이 점을 더 發明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醫學入門』의 「六氣主病」의 小註 내용과 『素問』의 注釋書를 통틀어 살펴보면, 모두 질병의 機轉을 風木, 君火(熱), 相火(火), 濕土, 燥金, 寒水 등으로 說明하였지, 三陰三陽으로는 說明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結論적으로, 疾病의 特徵을 分類할 때, 標에 속하는 三陰三陽의 屬性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本에 屬하는 六氣의 屬性을 기준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 2. 三陰三陽의 屬性和 標本中の 應用

또한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내용은 三陰三陽과 六氣의 配合의 原理<sup>15)</sup>, 六氣納支<sup>16)</sup>, 經脈納支<sup>17)</sup>, 標本の 陰陽 屬性<sup>18)</sup>은 『醫學入門·運氣總論』에서, 節氣와 方位는 「天地人物氣候相應圖」<sup>19)</sup>에서, 脈體<sup>20)</sup>, 治法<sup>21)</sup>, 中氣<sup>22)</sup>는 「標本論」, 「求本論」, 「雜治賦」, 「脾胃虛實傳變論」등이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三陰三陽으로 分類하여 三陰三陽의 屬性和 標本中の 關聯性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1077-1078.

1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85, p. 233.

1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85, p. 237.

1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85, pp. 251-252.

1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85, p. 233.

1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85, pp. 23-24.

2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2378.

2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87.

2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87.

## (1) 少陰

## (가) 少陰과 君火

君火는 熱한 南方의 午位에 居하므로 午가 君火가 된다. 또한 君火는 寒한 北方의 子와 相衝하므로 子가 少陰의 氣에 속한다.

## (나) 六氣納支: 午(本), 子(標)

君火는 午位에 居하므로 午가 本이 된다. 또한 子의 水와 相衝하므로 子가 標가 된다.

## (다) 節氣와 方位: 夏至(午), 冬至(子)/ 正南方(午), 正北方(子)

子午는 天地의 中正이 되어, 節氣로는 夏至(午), 冬至(子)에 해당한다. 午는 正南方에 속하고 子는 正北方에 속한다.

## (라) 標本の 陰陽 屬性: 本陽 標陰

君火는 南方의 午位에 居하여 本(午)은 熱하되, 子의 水와 相衝함으로써 그 氣가 陰이 生하는 初(午位)에 해당하므로 標(子)는 寒하여 少陰에 속한다.

『素問·至眞要大論』에 ‘至則氣同<sup>23)</sup>이라 하였듯이, 夏至는 熱이 盛한 중에 一陰이 始生하고, 冬至는 陰이 盛한 중에 一陽이 始生한다.

## (마) 經脈 納支: 手少陰(午:本), 足少陰(子:標)

少陰 君火의 標本을 手足 經脈으로 구분하면, 手少陰心(火)은 南方의 午에 해당하고 足少陰腎(水)은 北方의 子에 해당한다. 따라서 手少陰心은 君火인 本에 해당하여 熱하고, 足少陰腎은 少陰인 標에 해당하여 寒한다.

## (바) 脈體: 沈(標: 陰) 大(本: 陽)

沈은 陰脈이니 少陰인 標에 속하고, 大는 陽脈이니 君火인 本에 속한다.

三陽經에서 發하거나 三陰經에 發해도 모두 脈은 沈大로 같다.

## (사) 治法: 標陰本陽→從本從標→反治 중 寒因熱用

少陰의 標(寒) 本(熱)의 相反된 陰陽 屬性을 모두 거스르되(反治) 治療에 先後가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辛苦大寒한 藥에 酒를 넣고 熱服하여

本熱을 瀉하되 標陰을 扶支하게 하거나, 辛寒한 藥을 君으로 하고 甘溫한 藥을 佐로 해야 하니 이는 反治 중 寒因熱用에 해당한다.

단, 三陽經에 發한 경우는 甘溫하면서도 質이 輕한 藥으로 佐하고, 三陰經에 發한 경우는 甘溫하면서도 質이 重한 藥으로 佐한다.

## (아) 中氣(表裏): 太陽

만약 中氣를 論하자면 少陰의 標(寒)를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太陽의 本(寒)을 따르는 것이며, 역시 少陰의 本(熱)을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太陽의 標(熱)를 따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少陰의 治療에 中氣를 따르게 되면 결국 太陽의 治法인 熱因寒用이 되어 相衝된다. 그러므로 中氣를 論할 수 없다.

## (2) 太陽

## (가) 太陽과 寒水

본래 寒水는 北方의 子位에 居하여 子가 寒水가 된다. 또한 寒水는 熱한 南方의 午와 相衝하므로 午는 太陽의 氣에 속한다.

## (나) 六氣納支: 子→辰(本), 午→戌(標)

寒水는 寒한 北方의 子位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東東南方인 辰으로 前進하여 配合하므로 辰이 本이 된다. 또한 寒水는 午의 火와 相衝하지만, 실제로는 西西北方인 戌과 相衝하여 太陽의 氣가 生하므로 戌이 標가 된다. 따라서 辰은 子의 特성을, 戌은 午의 特성을 반영한다.

## (다) 節氣와 方位: 穀雨(辰), 霜降(戌)/東東南方(辰), 西西北方(戌)

辰戌은 七政의 魁三이 되어, 節氣로는 穀雨(辰), 霜降(戌)에 해당한다. 辰은 東東南方に 해당하고, 戌은 西西北方に 해당한다.

## (라) 標本の 陰陽 屬性: 本陰 標陽

본래 寒水는 北方의 子位에 居하여 本은 寒하되, 午의 火와 相衝함으로써 그 氣가 陽이 生하는 初(子位)에 해당하므로 標는 熱하여 太陽에 속한다. 이를 地支에 배속하면 本(辰)은 寒으로 陰이 되고, 標(戌)는 熱로 陽이 된다.

이처럼 五行의 方位로는 太陽 寒水가 子位에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03.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土에 해당하는 辰戌에 居하는 이유는, 水는 土에게 앞드려서 水가 땅 속으로 行하는 것처럼 水는 土에 의지하여 行事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戌은 六戊의 天門이 되고 辰은 六己의 地戶가 된다.

또한 寒水를 子午에 居하게 하고 君火를 다른 자리에 居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五運은 土를 머리로 삼고 六氣는 君火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君火가 午의 자리를 차지하고 民位인 寒水가 그 자리를 피한다.

(甲) 經脈: 足太陽膀胱(辰:本) 手太陽小腸(戌:標)

太陽 寒水의 標本을 手足 經脈으로 구분하면, 足太陽膀胱(水)은 東東南方의 辰에 해당하고 手太陽小腸(火)은 西西北方의 戌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太陽膀胱은 寒水인 本에 해당하여 熱하고, 足少陰腎은 少陰인 標에 해당하여 寒한다.

이처럼 手太陽小腸은 戌이 되고 足太陽膀胱은 辰이 되어 太陽이 辰戌에 居하지만, 火는 水를 따라서 化하니 水가 腎을 따라 이르게 되므로 足少陰은 腎臟이 되고, 足少陰의 位가 太陽과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氣는 足太陽膀胱과 相合한다. 따라서 太陽과 少陰이 表裏의 관계에 있다.

(乙) 脈體: 浮(標: 陽) 緊(本: 陰)

緊은 陰脈으로 寒水인 本에 속하고, 浮는 陽脈으로 太陽인 標에 속한다. 標와 本の 陰陽 屬性이 相反한다.

三陽經에서 發하거나 三陰經에 發해도 모두 脈은 浮緊하되, 臟이나 腑의 안으로 太陽(浮) 또는 寒水(緊)가 들어가면 해당 脈이 사라진다.

(丙) 治法: 標陽本陰→從本從標→反治 중 熱因寒用

太陽의 標(熱) 本(寒)의 相反된 陰陽 屬性을 모두 거스르되(反治) 治療에 先後가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辛熱大溫한 藥을 冷服하여 本寒을 攻하되 標陽인 眞陽을 扶持하거나, 辛熱한 藥을 君으로 삼고 甘寒한 藥을 佐로 삼으니 이는 反治 중 熱因寒用에 해당한다.

단, 三陽經에 發한 경우는 甘溫하면서도 質이 輕한 藥으로 佐하고, 三陰經에 發한 경우는 甘溫

하면서도 質이 重한 藥으로 佐한다.

(甲) 中氣(表裏): 少陰

만약 中氣를 論하자면 太陽의 標(熱)를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少陰의 本(熱)을 따르는 것이며, 역시 太陽의 本(寒)을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少陰의 標(寒)를 따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太陽의 治療에 中氣를 따르게 되면 결국 少陰의 治法인 寒因熱用이 되어 相衝된다. 그러므로 中氣를 論할 수 없다.

(3) 太陰

(甲) 太陰과 濕土

土는 長夏인 未位에 應하는데, 未는 少陰인 午의 다음으로 陰이 크므로 太陰이라 한다.

(乙) 六氣納支: 未(本), 丑(標)

太陰 濕土는 濕한 中央의 未位에 居하므로 未가 本이 된다. 또한 濕土는 丑과 相衝하여 太陰의 氣를 이루므로 丑이 標가 된다.

(丙) 節氣와 方位: 大寒(丑), 大暑(未)/中央(未), 北北東方(丑)

丑未가 歸藏의 標本이 되어, 節氣로는 大寒(丑), 大暑(未)에 해당한다. 未는 南南西方이면서 中央에 해당하고, 丑은 北北東方에 해당한다.

土는 寄旺하므로 辰戌丑未의 四維가 있지만, 五行의 相生에 따라 未가 土의 本位에 해당한다.

陽이 極盛한 때는 午位이지만 실제로 未에 와서 더욱 陽이 성하며, 陰이 극성한 때는 子位이지만 실제로는 丑에 와서 더욱 陰이 성하다. 그 이유는 子午가 陰陽의 極에 해당함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天은 氣로만 있어서 즉시 氣가 行해지나, 地는 形이 있어서 天氣를 받아서 形으로 행해지는 데 약간 늦어진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午時가 가장 陽이 極한 때이지만 실제로는 未時가 더욱 따뜻하며, 一年에도 冬至가 가장 陰이 極한 때이지만 실제로는 大寒이 더욱 춥다.

이와 같이 地氣가 天氣보다 늦으므로 땅위에 있는 萬物이 丑을 지나야 비로소 蘇生하고 未를 지나면 비로소 收斂하므로 丑未가 歸藏의 標本이 된다고 하였다.

(라) 標本の 陰陽 屬性: 標陰 本陰

본인 未와 標인 丑이 모두 濕하여 모두 陰에 해당하지만, 濕의 盛衰가 달라서 本(未)은 濕이 많고 標(丑)는 濕이 적어서 氣의 強弱 虛實의 차이가 생긴다.

(마) 經脈: 足太陰脾(未:本), 手太陰肺(丑:標)

太陰 濕土의 標本을 手足 經脈으로 구분하면, 足太陰脾(土)는 中央인 未에 해당하고 手太陰肺(金)는 北北東方인 丑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太陰脾는 濕土인 本에 해당하여 濕이 盛하고 手太陰肺는 太陰인 標에 해당하여 濕이 衰한다.

(바) 脈體: 沈(標: 陰) 緩(本: 陰)이니, 沈은 陰脈이니 太陰인 標에 속하고, 緩은 陰脈이니 濕土인 本에 속한다. 標本の 陰陽 屬性이 相同한다.

(사) 治法: 標陰本陰→從本→正治중 寒因寒用, 塞因塞用

太陰의 標와 本の 相同한 陰陽 屬性(陰)을 따르되(正治), 太陰은 收藏을 주하니 痞滿하여 窒塞하므로, 或은 苦寒한 藥으로 그 痞滿을 瀉하거나 或은 甘溫한 藥으로 그 氣를 助한다.

苦寒으로 瀉하는 것은 正治 중에 寒因寒用에 해당하고, 甘溫으로 助하는 것은 正治 중에 塞因塞用에 해당한다.

(아) 中氣(表裏): 陽明

中氣를 論하자면, 太陰의 標本은 모두 陰으로서 이미 本을 따르며, 中氣인 陽明의 標本은 陰陽 屬性이 相反하므로, 中氣를 論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4) 少陽

(가) 少陽과 相火

相火는 寅을 말하는데, 寅은 太陰인 丑의 다음이므로 陽이 비로소 생기므로 少陽이라 한다.

(나) 六氣納支: 午→寅(本), 子→申(標)

少陽 相火는 脾를 도우며(火生土) 비록 午位가 있으나, 이미 君火가 居하고 있으므로 寅에 居하게 된다. 또한 火는 寅에서 生하기 때문에 相火가 寅에 居한다. 따라서 相火의 本은 寅이 된다. 또한 相火는 申과 相衝하여 少陽의 氣를 이루므

로 申이 少陽의 標가 된다.

(다) 節氣: 雨水(寅), 處暑(申)/東北方(寅), 西西南方(申)

寅申이 生化의 終始가 되어, 節氣로는 雨水(寅), 處暑(申)에 해당한다. 寅은 東北方에 해당하고 申은 西西南方に 해당한다.

萬物은 火가 生하면 따라서 生하고, 火가 滅하면 따라서 滅하므로 寅申은 生化의 終始를 맡게 된다.

(라) 標本の 陰陽 屬性: 標陽 本陽

본인 寅과 標인 丑이 모두 溫하여 모두 陽에 해당하지만, 溫의 進退가 달라서 本(寅)은 溫이 장차 盛해지고 標(丑)는 溫이 장차 衰하므로 氣의 強弱과 虛實의 차이가 있게 된다.

(마) 經脈: 足少陽膽(寅:本), 手少陽三焦(申:標)

少陽의 標本을 手足 經脈으로 구분하면, 足少陽膽(木)은 東北方인 寅에 해당하여 火가 장차 盛해지고 手少陽三焦(火)는 申에 해당하여 火가 장차 衰한다.

(바) 脈體: 浮(標) 數(本)

浮는 陰脈이니 少陽인 標에 속하고, 數은 陽脈이니 相火인 本에 속한다. 標와 本の 陰陽 屬性이 相同한다.

(사) 治法: 標陽 本陽→從本→正治중 通因通用

少陽의 標와 本の 相同한 陰陽 屬性(陽)을 따르되(正治), 少陽은 三禁(禁汗 禁下 禁滲)이 있다. 禁汗하는 이유는 風證은 본래 自汗하기 때문이고, 禁下하는 이유는 陰을 損傷할까 염려하기 때문이고, 禁滲하는 이유는 陽을 損傷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辛溫으로 天氣를 上通하여 春升之令에 順하게 하니, 이는 正治 중 通因通用에 해당한다.

(아) 中氣(表裏): 厥陰

中氣를 論하자면, 少陽의 標本은 陽으로서 이미 本을 따르며, 中氣인 厥陰의 標本은 陰陽 屬性이 相反하므로, 中氣를 論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5) 陽明

(가) 陽明과 燥金

金은 西方 兌에 居하는데, 사람에 있어서는 肺를 主하여 膈上의 陽位에 居한다. 따라서 金은 반드시 陽을 기다린 뒤(卯酉 相衝)에 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金은 陽明에 속한다.

(나) 六氣納支: 酉(本), 卯(標)

燥金은 肅殺을 맡아서 燥한 西方의 酉位에 居하므로 酉가 本이 된다. 또한 燥金은 卯와 相衝하여 陽明의 氣를 이루므로 卯가 陽明의 標가 된다.

(다) 節氣: 秋分(酉), 春分(卯)/正西方(酉), 正東方(卯)

陽明은 日月의 道路가 되어, 節氣로는 秋分(酉), 春分(卯)에 해당한다. 酉는 正西方에 해당하고 卯는 正東方에 해당한다.

(라) 標本의 陰陽 屬性: 本陽 標陰

卯酉는 陰陽之分에 해당하여 『素問·至眞要大論』에 '分則氣異'<sup>24)</sup>라 하였듯이, 本인 酉와 標인 卯가 半陰 半陽이 된다. 그러나 酉는 陰이 陽보다 점점 많아지고, 卯는 陽이 陰보다 점점 많아지므로 微細한 차이로 陰陽의 氣가 달라진다. 따라서 本(酉)은 陰이 되고 標(卯)는 陽이 된다.

(마) 經脈: 足陽明胃(酉:本), 手陽明大腸(卯:標)

陽明 燥金의 標本을 手足 經脈으로 구분하면, 足陽明胃(土)는 正西方인 酉에 해당하고, 手陽明胃(金)는 正東方인 卯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陽明胃(酉)는 燥金인 本에 해당하여 半陰半陽 중에 陰이 陽보다 점점 많아지고, 手陽明大腸(卯)은 陽明인 標에 해당하여 半陽半陰 중에 陰이 陽보다 점점 많아진다.

(바) 脈體: 浮(表: 陽) 短(本: 陰)

沈은 陰脈이니 太陰인 標에 속하고, 緩은 陰脈이니 濕土인 本에 속한다. 標와 本の 陰陽 屬性이 中氣인 太陰과 다르다.

(사) 治法: 標陽 本陰, 中氣(太陰)→從中

手陽明大腸(標:陽)은 熱을 좋아하고 淸을 싫어하며, 足陽明胃(本:陰)는 淸을 좋아하고 熱을 싫어한다. 역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一定한 治法에 구애해서 늘 안 되므로 從中

하여 治療한다.

또한 足陽明은 十二經之海가 되어 氣血를 經營하여 諸經이 모두 稟賦받으므로 陽明은 厥陰과 함께 어떤 經이든지 併合되어 病이 되니 中을 參酌하여 用藥하여야 한다. 脾胃의 病은 한 가지 예로서 미루어 치료할 수 없으니, 東垣의 『脾胃論』은 사람들로 하여금 百病이 모두 脾胃로 말미암아 생김을 發明한 것이다.<sup>25)</sup>

(아) 中氣(表裏): 太陰

太陽과 少陰도 中氣로 따지면 標本에 따라 陰陽 屬性이 相反하는 점은 陽明과 같으나, 太陽과 少陰은 서로 中氣가 되는 점은 陽明과 다르다. 厥陰과 陽明은 서로 中氣가 되지 않으며 或陰 或陽에 따라서 的中해야 한다.

(6) 厥陰

(가) 厥陰과 風木

木은 東方의 震位에 居하는데, 사람에 있어서 肝을 主하여 膈下의 陰位에 處한다. 따라서 木은 반드시 陰을 기다린 뒤에(卯酉 相衝) 生하므로 厥陰에 속한다.

(나) 六氣納支: 卯→亥(本), 酉→巳(標)

風木은 生化의 根源이 되어 東方 卯位에 해당하지만, 燥金이 卯에 居하므로 寒水와 마찬가지로 亥에서 生하지 못하고 亥로 후퇴한다. 또한 木이 亥에서 生하기 때문에 風木이 亥에 居한다. 또한 風木은 巳와 相衝하여 厥陰의 氣를 이루므로 巳가 厥陰의 標가 된다. 따라서 亥는 卯의 특성을, 巳는 酉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厥陰을 卯酉에 居하게 하고 陽明을 다른 자리에 居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六氣에 있어서 君火가 司天하여 君位에 있으면 陽明이 司地하여 臣位에 있으므로, 陽明이 酉의 자리를 차지하고 民位인 厥陰이 그 자리를 피한다.

(다) 節氣: 小雪(亥), 小滿(巳)/北北西方(亥), 南南東方(巳)

巳亥는 天地의 門戶가 되어, 小雪(亥), 小滿(巳)에 해당한다. 亥는 北北西方에 해당하고 巳는 南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03.

2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1347-1348.



南東方에 해당한다.

(㉔) 標本の 陰陽 屬性: 標陰 本陽

卯酉는 陰陽之分에 해당하여 『素問·至眞要大論』에 '分則氣異'라 하였듯이, 本인 卯와 標인 酉가 半陰 半陽이 된다. 그러나 卯(本)는 陽이 陽보다 점점 많아지고, 酉(標)는 陰이 陽보다 점점 많아지므로 微細한 차이로 陰陽의 氣가 달라진다. 이를 地支에 배속하면 本(亥)은 陰이 되고, 標(巳)는 陽이 된다.

(㉕) 經脈: 足厥陰肝(亥:本), 手厥陰心包(巳:標)

厥陰 風木의 標本을 手足 經脈으로 구분하면, 足厥陰肝(木)은 北北西方인 亥에 해당하고 手厥陰心包(火)는 南南東方인 巳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厥陰肝(亥)은 風木인 本에 해당하여 半陽半陰 중에 陽이 점점 많아지고, 手厥陰心包(巳)는 厥陰인 標에 해당하여 半陽半陰 중에 陰이 점점 많아진다.

(㉖) 脈體: 沈(標: 陰) 弦(本: 陽)이니 沈은 陰脈이니 厥陰인 標에 속하고, 弦은 陽脈이니 風木인 本에 속한다. 標와 本の 陰陽 屬性이 中氣인 少陽과 다르다.

(㉗) 治法: 標陰 本陽, 中氣(少陽)→從中

足厥陰肝(本:陽)은 潤을 좋아하고 燥를 싫어하며, 手厥陰心包絡(標:陰)은 十二經을 總轄하여 五行 중에 속하지 않고 坤元一正의 土에 해당하여 비록 生長을 초하나 靜을 좋아하고 燥를 싫어하므로 少陽의 元氣를 품부 받아야만 능히 生育할 수 있다. 따라서 三焦는 元氣의 父가 되고 包絡은 陰血의 母가 된다. 이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一定한 治法에 구애해서는 안 되므로 從中하여 治療한다.

厥陰은 十二經의 領袖로서 陰陽을 化生하므로 氣血을 經營하여 諸經이 모두 稟賦받으므로, 厥陰은 陽明과 함께 어떤 經이든지 함께 併合되어 病이 되니 中을 參酌하여 用藥하여야 한다.<sup>26)</sup>

특히 厥陰은 風木에 해당하여 疾病에 있어서 中風에 해당하니, 風이 經에 的中하여 안으로 대소변의 막힘이 없고, 밖으로 六經의 形證이 없으

면 '從中'하여 治療한다. 따라서 汗하거나 下해서는 안 되니, 대개 風은 熱에서 근본하나니 熱이 勝하면 風이 動하기 때문이다. 風邪가 中經한 경우는 마땅히 養血하여 燥氣를 이기도록 한다.<sup>27)</sup>

(㉘) 中氣(表裏): 少陽

太陽과 少陰도 中氣로 따지면 標本에 따라 陰陽 屬性이 相反하는 점은 厥陰과 같으나, 太陽과 少陰은 서로 中氣가 되는 점은 厥陰과 다르다. 厥陰과 陽明은 서로 中氣가 되지 않으며 或陰 或陽에 따라서 的中해야 한다.

### III. 考察

이상 『醫學入門』을 통해서 三陰三陽과 六氣納支, 節氣와 方位, 經脈納支, 脈體, 中氣 等の 기준으로, 三陰三陽과 六氣의 配合의 原理와, 標本の 陰陽 屬性, 治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三陰三陽과 六氣 配合의 原理

첫째, 三陰三陽의 屬性和 地支의 配合은 일치하지 않는다.

太陽과 厥陰은 비록 地支로 辰戌과 巳亥에 배합하지만, 실제로 標本の 陰陽 屬性은 納支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子午는 極陰極陽으로, 午는 極陽 중에 一陰始生하니 少陰 君火의 特性을 반영하고, 子는 極陰 중에 一陽始生하니 太陽 寒水의 特性을 반영한다. 그러나 太陽은 辰戌에 배합하였다.

卯酉는 半陰半陽으로, 酉는 半陰半陽 중에 陰이 陽보다 점점 많아지니 陽明 燥金의 特性을 반영하고, 卯는 半陰半陽 중에 陽이 陰보다 점점 많아지니 厥陰 風木의 特性을 반영한다. 그러나 厥陰은 巳亥에 配合하였다.

둘째, 三陰三陽의 特性和 六氣納支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標本の 陰陽 特性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節氣, 方位 등은 일정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26) 李樞,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1347.

27) 李樞,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1373.

太陽은 본이 자에서 辰으로 옮겨서 方位가 正北에서 東東南으로, 節氣가 冬至에서 雨水로 바뀌며, 厥陰은 본이 卯에서 亥로 옮겨서 方位가 正東에서 北北西로, 節氣가 春分에서 小雪로 바뀌며, 少陽은 본이 午에서 寅으로 옮겨서 方位가 正南方에서 東東北方으로, 節氣가 夏至에서 雨水로 바뀌었다.

셋째, 三陰三陽의 本氣의 五行 屬性和 經脈納支가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다.

陽明 燥金은 五行 屬性이 같은 手陽明大腸이 본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足陽明胃가 본이 되며, 少陽 相火도 五行 屬性이 같은 手少陽三焦가 본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足少陽膽이 본이 된다.

넷째, 標本을 기준으로 六氣納支와 經脈納支를 했을 때, 少陰經을 제외하고 足經이 본이 되고 手經이 標가 된다.

## 2. 標本의 陰陽 屬性

첫째, 少陽과 太陰은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같더라도 여전히 氣의 強弱, 虛實의 차이가 있다.

寅申은 標本이 모두 陽이라 하더라도, 火의 胞胎에 있어 寅에서 生하고 申에서 病이 되므로, 寅(本)과 申(標)의 性質이 다르다.

丑未는 標本이 모두 陰이라 하더라도, 土의 胞胎에 있어 丑에서 胎하고 未에서 旺이 되므로, 濕의 盛衰가 달라서 本(未)은 濕이 많고 標(丑)는 濕이 적다.

둘째,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을 標本의 陰陽 屬性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太陽은 本寒 標熱하고 少陰은 本熱 標寒하여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고, 太陽과 少陰은 서로 中氣가 된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 자신의 標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 곧 그 中氣의 本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며, 역시 자신의 本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의 標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 되므로, 自然히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을 同時에 따르게 된다.

(2) 少陽은 本熱 標熱하고 太陰은 本寒 標寒하

여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同하므로, 治療에 있어서 本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 곧 標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本을 따르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굳이 中을 論하자면, 少陽은 本熱 標熱로 標本이 모두 陽인데 반해, 그 中氣인 厥陰은 本陽 標陰으로 標本의 陰陽 屬性이 달라서 일치하는 면이 없다. 또한 太陰은 本陰 標陰으로 標本이 모두 陰인데 반해, 그 中氣인 陽明은 本陰 標陽으로 역시 標本의 陰陽 屬性이 달라서 일치하는 면이 없다.

(3) 陽明은 本陰 標陽이고 厥陰은 本陽 標陰으로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며, 中氣인 太陰과 少陽은 각각 本陰 標陰, 本陽 標陽으로 標本의 陰陽 屬性이 같으니, 治療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 或 標의 陰陽 屬性을 따르거나 或 本의 陰陽 屬性을 따라야 한다.

太陽과 少陰은 治療에 있어서 標本을 同時에 따르는 반면에, 厥陰과 陽明은 或 標를 따르거나 或 本을 따른다.

그 이유는 太陽과 少陰의 경우는 自體의 標本과 中氣의 本標가 陰陽 屬性이 같으므로, 本만 따르더라도 이미 標를 따르는 것이 自然히 포함되며 標만 따르더라도 이미 本을 따르는 것이 自然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厥陰과 陽明은 自體의 標本과 中氣의 標本의 陰陽 屬性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標本의 或陰 或陽에 따라서 的中해야 한다.

## 3. 治法

첫째,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따라 治法이 각각 相異하다.

太陽 少陰은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지만 그 屬性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治療에 있어서 標本의 陰陽을 모두 따르면서도 或先 或後의 차이가 있게 하니, 太陽에는 熱因寒用, 少陰에는 寒因熱用하는 反治를 사용한다.

太陰, 少陽은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同하여 모두 本을 따르니, 治療에 있어서 陰陽, 先後의

차이가 없으므로, 太陰에는 寒因寒用, 塞因塞用하고, 少陽에는 通因通用하는 正治를 사용한다.

陽明과 厥陰은 標本の 陰陽 屬性이 半陰半陽으로 相反하기 때문에, 治療에 있어서 標本の 陰陽을 따를 수 없고 때에 따라 或標 或本을 따르므로 一定한 治法이 없으므로 '從中'한다.

둘째, “少陰太陽 從本從標”를 治療에 응응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或 本을 따르거나 或 標를 따른다고 해석한다. 喻昌은 “太陽寒水 本寒標熱 少陰君火 標熱本寒 其治或從本 或從標 審寒熱而異施也”<sup>28)</sup>라 하였다.

또한 或 本을 따르거나 或 標를 따르되 治療에 先後가 있다고 해석한다. 張介賓은 “少陰太陽…… 標本異氣 故或從本 或從標 而治之有先後也”<sup>29)</sup>라 하였다.

또한 標와 本을 동시에 따른다고 해석한다. 위에서 밝힌 少陰과 太陽의 治法에 입각해서 해석하자면, 少陰은 寒因熱用하며 太陽은 熱因寒用하므로, 치료에 있어서 標本을 同時에 따른다.

따라서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달리 할 수 있다.

‘不從標本’에 대해 ‘太陽, 少陰이 標와 本을 同時에 따르되 先後가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從乎中’에 대해 喻昌은 “厥陰風木 木從風化 風爲本 厥陰爲標 其治不從標本而從乎中 中者 中見之氣也”<sup>30)</sup>라 하였는데, 대부분 『至真要大論』의 “從中者 以中氣爲化也”에 근거하여 ‘中氣를 따른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대로, 陽明과 厥陰의 治法은 실제로는 中氣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中氣를 따른다.’는 해석은 治法을 說明하기에는 未盡한 감이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經云 惟有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 中乃不定之辭 非中外之中也”<sup>31)</sup>라

하여 中은 ‘中外’의 中이 아니라 一定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治法에 있어서 ‘從乎中’의 해석은, 『中庸集注』에서 “中者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sup>32)</sup>과 『周易』의 ‘時中’<sup>33)</sup>의 의미인 ‘隨時取中’<sup>34)</sup>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 IV. 結論

『醫學入門』을 통해서 三陰三陽 各各에 대해서 六氣의 配合의 原理, 六氣納支, 節氣와 方位, 標本の 陰陽 屬性, 經脈納支, 脈體, 治法, 中氣 등으로 分類·考察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三陰三陽의 屬性和 地支의 配合는 일치하지 않는다. 太陽과 厥陰은 비록 地支로 辰戌과 巳亥, 寅申에 배합하지만, 실제로 標本の 陰陽 屬性은 納支의 원리와 다르다. 그로 인해 標本の 陰陽 特性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節氣, 方位 등은 일정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2. 三陰三陽의 本氣의 五行 屬性和 經脈納支가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다. 陽明 燥金은 手陽明大腸이 본이 아니라, 실제로는 足陽明胃가 본이 되며, 少陽 相火도 手少陽三焦가 본이 아니라, 실제로는 足少陽膽이 본이 된다.
3.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따라 治法이 각각 相異하다. 첫째, 標와 本の 陰陽 屬性이 相反한 경우는 反治를 사용한다. 少陰은 本熱 標寒, 太陽은 本寒 標熱하여 寒熱이 定해지지 않으니 太陽은 熱因寒用하고, 少陰은 寒因熱用한다. 둘째, 標와 本の 陰陽 屬性이 相同한 경우는 正治를 사용한다. 太陰은 標本이 모두 寒하고 少陽은

28)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1.

29) 張介賓, 類經圖翼, 成輔社, 서울, 1982, p. 140.

30)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2.

3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1347.

32) 朱熹, 中庸集注,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23.

33) 朱熹, 周易傳義大全(元),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466.

3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2388.

標本이 모두 熱하니, 太陰은 寒因寒用, 塞因塞用하고, 少陽은 通因通用한다.

셋째,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면서도 中氣의 陰陽 屬性과도 다른 경우는, 正治나 反治를 사용할 수 없고, 從中하여 治療한다. 즉 厥陰, 陽明 一定한 治法에 구애해서 안 되고 때에 따라서 中을 따른다.

4. “少陰太陽 從本從標”를 治療에 應用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혹 本을 따르거나 혹 標를 따른다. 둘째, 혹 本을 따르거나 혹 標를 따르되 治療에 先後가 있다. 셋째 少陰은 寒因熱用하며 太陽은 熱因寒用하므로 標本을 同時에 따른다.

5.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의 ‘從乎中’은 治法의 활용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中을 取한다’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2.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3. 金丁雨, 金吉菴, 經絡의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5(1), 1990.
4. 金昊顯,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關한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4(2), 1999.
5.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6. 方葯中,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7. 申興默, 金吉菴, 十二經脈의 六氣 調節生理에 關한 研究(II), 東西醫學 16(3), 1991.
8.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9.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10.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11. 尹暢烈, 醫哲學, 大田, 주민출판사, 2005.
12.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5.
13.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15. 張志聰, 新編素問集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6. 朱熹, 周易傳義大全(元), 大田, 學民文化社, 1990.
17. 朱熹, 中庸集注, 大田, 學民文化社, 1990.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素問縣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